

제15권 11호

2025. 6. 9~2025. 6. 22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힐빌리'의 반격과 국제경제질서 재편
- 이슈분석 新시니어 등장으로 확대되는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 금융경영브리프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사, 중동 사업 확대
SMBC, 인도 Yes Bank 지분 인수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강미정(ashleykang)
연구원 유승원(youth1)

논단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춘원

이슈분석

연구위원 이재완(jwan.lee)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오유진(yujin.oh)
연구원 유승원(youth1)

금융지표

연구원 정안선(ansunc)

제15권 11호

2025. 6. 9~2025. 6. 22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힐빌리'의 반격과 국제경제질서 재편
- 04 **이슈분석** 新시니어 등장으로 확대되는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 08 **금융경영브리프**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사, 중동 사업 확대
SMBC, 인도 Yes Bank 지분 인수
- 12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힐빌리’의 반격과 국제경제질서 재편*

박 춘 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백인 노동계층 ‘힐빌리’ 지지 기반으로 집권한 트럼프는 고율의 관세정책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경쟁국 중국에 대한 견제를 꾀하고 있다. 핵심정책수단인 ‘상호관세’의 특징은, 다자주의 완전 폐기와 양자 협상방식 무역규범으로의 전환, 보다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관세정책을 통한 중국 압박, 다양한 정치·경제 이슈의 협상의제 포함으로 협상의 난도 상향 등이다. 필연적인 세계화 퇴조와 국제분업체제 재편을 초래할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 美 백인 노동계급 ‘힐빌리’와 트럼프 집권의 의미

‘힐빌리’¹⁾는 원래 미국 애팔래치아 산악지대 및 남부 시골 지역의 백인 하층민을 가리키는 속어였으나, 지금은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백인 노동계층을 지칭한다. 이들은 20세기 중엽까지 철강·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종사하며 미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미숙련·저소득 노동자로 전락하여 사회적 약자의 상징이 되었다. 이들의 몰락은 세계화 진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세계화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크게 약화되었다.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생산기지 해외이전과 급격한 탈산업화로 미국의 산업구조는 IT·금융 등 하이테크·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미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음식·소매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들의 임금수준은 전문직 종사자의 1/3에 그칠 만큼 열악한데, 이는 1980년 0.40 수준이던 지니계수가 2023년 0.49로 상승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린 세계화에 대한 반감과 반이민·보호무역 선호의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에게 이들의 환호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작년 대선에서 이들의 주 거주지인 오하이오 등 러스트벨트 일대와 중서부·남부 등에서의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는 이를 증명한다. 단언컨대, 비주류 정치인인 트럼프가 워싱턴 정가의 엘리트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들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은 바 크며, 그런 점에서 가히 ‘힐빌리’의 반격이라 일컬을 만하다.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백인 노동계층이 트럼프의 강력한 정치적 지지 세력으로 부상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美 J.D. 밴스 부통령의 자전적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에 의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트럼프의 핵심 정책수단은 ‘상호관세’

이들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하는 트럼프의 경제적 메시지는 명확하다. 그것은 제조업 부흥을 통한 ‘위대한 미국 재건(MAGA)’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중국 견제이다. 즉, 현재의 첨단·전략산업 우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리쇼어링을 통한 전통 제조업의 회복을 꾀하는 한편,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고 일자리를 뺏어가는 ‘경제 침략자’ 중국을 통제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무역적자를 일종의 ‘국부유출’로 규정하고, 무역적자 상대국에 대해서는 비록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정책수단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중국 견제를 도모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정책수단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이다. 원래 상호관세의 개념은 상대국이 매기는 관세만큼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는 것이나 트럼프식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와의 무역적자를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1/2을 관세율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중국 34%, EU 20%, 일본 24%, 한국 25%, 베트남 46% 등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적자 해소, 재정부담 완화, 제조업 리쇼어링, 글로벌 지정학적 우위확보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평가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이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관세정책은 실질환율 상승, 보복관세 등으로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무역규모 위축으로 관세수입 증가효과도 크지 않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인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합지역 산업 활동은 증가한 반면 중국 등의 보복관세로 공화당 우세지역 산업은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다.

‘상호관세’의 특징과 세계화의 퇴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국제경제질서의 가버넌스와 관련하여 다자주의를 완전히 폐기하고 전적으로 양자 협상방식의 무역규범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각 나라마다 상이한 관세율을 부과함에 따라 각국은 서로의 협상카드를 감추면서 미국 주도의 일대일 협상에 임해야 하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국별 의제가 달라 공동대응도 어려우므로 결국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가 상승하게 된다.

‘상호관세’는 다자주의 폐기, 포괄적·고강도 부과, 협상의제 복잡 다기화 등이 특징

둘째, 보다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관세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집권기에는 중국·EU·캐나다·멕시코 등 특정 국가에 관세를 직접 부과하였으며 대상품목도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었다. 반면, 지금은 대부분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적자 규모에 따라 국별로 11~50%의 차등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산 제품이 타국으로 우회하여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관세장벽 및 산업보조금을 통해 중국진출 생산기지의 회귀를 유도하는 한편 대중 기술수출 규제로 중국의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통제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꾀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정치·경제 이슈를 협상의제에 포함시킴으로써 협상의 난도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는 반도체·대만·팬타닐·희토류, 나토회원국과는 디지털 서비스세·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축소·국방비 예산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단순한 무역 문제라면 미국산 농산물이나 에너지 수입을 통해 적정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 극대화, 특히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백인 노동계급의 정치·경제적 가치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경제·안보의 대미 의존도가 높고 미중 간 전략적 샌드위치에 처해 있는 한국은 매우 힘겨운 협상과정을 거칠 공산이 크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생산기지 이전 요구, 방위비 분담 증액, 환율정책 공조 등이 예상된다. 또한 의제가 다양한 만큼 협상단계마다 돌출되는 불확실성도 우리 경제·금융시스템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난 50여 년 간 진행된 세계화와 자유무역 확대는 글로벌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세계경제는 유례없이 성장하였고 소비자는 저렴한 양질의 제품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된 소외계층이 어느덧 커다란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세계화의 흐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번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폭탄은 세계화 퇴조의 신호탄이며 그간 촘촘히 쌓아 올린 글로벌 공급망의 파열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충격은 필연적인 국제분업체계의 재편을 초래할 것이다. 향후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과 갈등이 반복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니만큼 이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세계화 퇴조와 국제분업체계 재편의 신호탄

新시니어 등장으로 확대되는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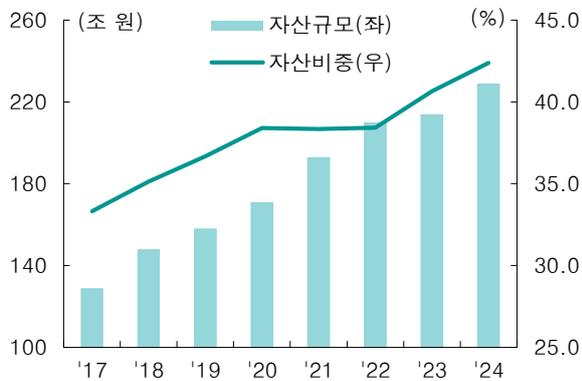
이재완 연구위원

경제력을 기반으로 웰다잉을 추구하는 新시니어층의 시니어케어 시장 진입과 함께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케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고품질 케어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프리미엄 시설은 외형보다는 케어의 질·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본인의 자금으로 비용을 지불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高자산 보유, 웰다잉 추구 경향의 新시니어층 진입으로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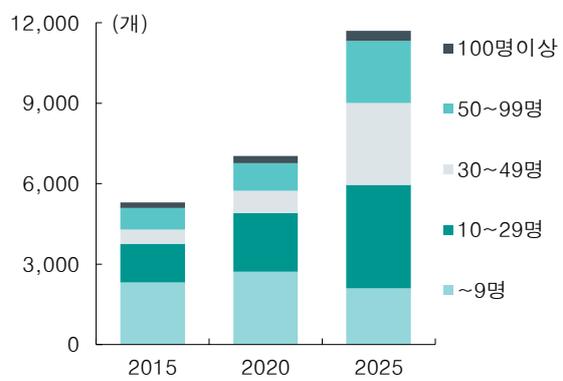
- 경제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새로운 시니어 계층이 시니어케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며 고품질 케어에 대한 니즈 확대
 -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의 규모는 '17년 129조 원에서 '24년 229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33%에서 42%로 확대
 - 노년기에 웰리빙은 물론 웰다잉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새로운 시니어층은 자신에게 투자하며 독립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특징
- 소형 시설 위주의 노인요양시설 시장에 대기업·금융기관이 진입하며 차별화된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는 대형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이 확대
 - 국내 장기요양시설 수는 '15년 5천개에서 '25년 1.2만개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30인 이상 중대형 시설 비중이 동기간 30%에서 49%로 증가
 - 하나금융('09년 개소), KB('16년 개소), 종근당('21년 개소), 신한('25년 개소 예정) 등 대기업·금융기관에서 대형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을 지속 확대하는 추세

■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 규모 및 비중



자료 : 통계청

■ 장기요양 시설규모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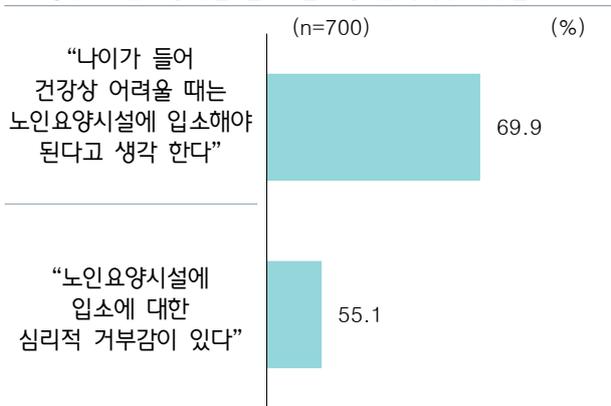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

※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입소하는 요양원 중에서 심세한 돌봄 및 1~2인실의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본인 부담금이 높은 시설

■ **신시니어층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시설을 선호¹⁾**

- **신시니어 층은 향후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
 - 응답자의 69.9%가 향후 건강상 어려울 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야 된다고 응답
 - 입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자 중 61.6%가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4.1%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입소해야 된다고 인식
- **하지만 여전히 케어에 대한 불안감으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상존하며 입소 시점에 근접한 만65~69세의 거부감이 큰 편**
 - 응답자의 55.1%가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만50~54세의 응답률은 50.0%인 반면 만65~69세의 응답률은 62.2%
 - 조사 결과 ‘인권침해 및 학대우려’(54.4%) 및 ‘가족, 사회와의 단절’(40.2%), ‘자기 결정권 제한’(36.3%)이 거부감의 주된 이유로 확인²⁾
 - 특히, 입소 거부감이 컸던 만65~69세는 타 연령층 보다 ‘가족, 사회와의 단절’(44.6%), ‘자기 결정권 제한’(45.7%) 등 개인 자율성을 제한하는 케어 방식을 더욱 우려
- **케어에 대한 질적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일반 노인요양시설보다 고품질 케어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을 선호하는 경향**
 - 일반 노인요양시설의 본인 입소 의향은 53.0%, 가족 입소 의향은 53.7%라고 응답한 반면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의 본인 입소 의향은 61.9%, 가족 입소 의향은 59.4%

■ **향후 노인요양시설 입소 필요성 인식 및 거부감**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 **향후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 (의향이 있다 응답률)**

구분 (n=700)	노인요양시설 (%)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
본인 입소	53.0%	61.9%
가족 입소	53.7%	59.3%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1] 당 연구소는 신시니어(부동산 포함 총 자산 10억 이상 보유, 만50~69세)를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인식 및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관련 니즈를 조사

[2] 1순위 + 2순위 응답 기준

■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은 외형보다는 케어의 질·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인식

-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은 좋은 요양시설을 판단할 때 시설 외형 및 분위기보다는 케어의 질 및 전문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파악
 - ‘세심하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58.6%),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능을 유지해주는 시설’(32.3%)을 좋은 요양시설이라고 인식³⁾
- 향후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선택 시 입지뿐만 아니라 직원의 수 및 전문성을 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인 입소 시에는 생활환경도 중요시
 - 가족 입소 시 ‘보호자와의 접근성’(35.3%), ‘직원수 및 전문성’(32.0%), ‘시설 내외부 환경’(29.6%)을 주로 고려한다고 응답
 - 본인 입소 시 ‘시설 내외부 환경’(32.3%), ‘보호자와의 접근성’(30.5%), ‘직원수 및 전문성’(29.1%)을 우선 고려한다고 응답

■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지불하고 주로 연금을 활용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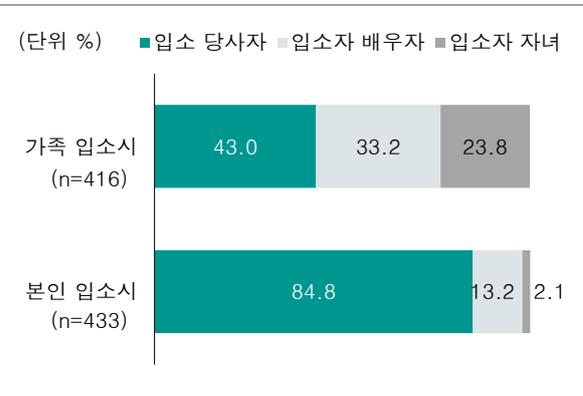
-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비용은 자녀를 통해 조달하기보다는 입소자 본인의 금융자산을 활용해 조달하려는 경향 확대
 - 가족이 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 당사자(43.0%) 혹은 배우자(33.2%)의 자금으로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라고 응답
 - 한편 본인이 입소할 경우 84.8%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응답
- 향후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필요한 자금은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기보다는 공적연금 및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마련할 계획
 - 가족 입소 시 입소자의 공적연금(31.5%), 금융자산(23.3%), 보유 부동산 월세(19.2%)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

■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선택시 중요 고려요인

(1+2순위 응답)	가족 입소 시 (n=416)	본인 입소 시 (n=433)
1순위	보호자와의 접근성 (35.3%)	시설 내외부 환경 (32.3%)
2순위	직원수 및 전문성 (32.0%)	보호자와의 접근성 (30.5%)
3순위	시설 내외부 환경 (29.6%)	직원수 및 전문성 (29.1%)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자금조달 방안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3) 1순위+2순위 응답 기준

- 반면 본인 입소 시에는 공적연금(33%), 금융자산 (23.3%), 실물자산(17%)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유 부동산 월세(10.1%) 및 주택연금(4.7%)의 활용 계획은 낮은 편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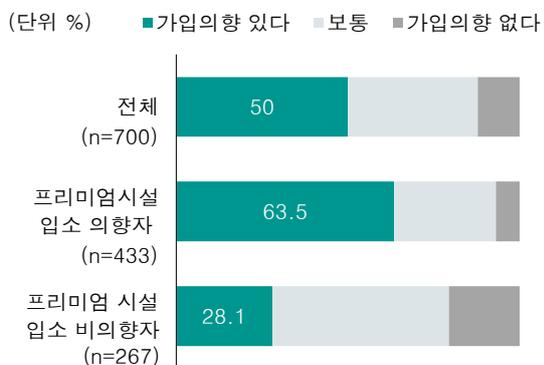
■ 본인의 자금으로 요양시설 비용을 마련하려는 경향 때문에 관련 금융상품 수요는 높은 편

- 향후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자들의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 니즈가 큰 것으로 확인
 -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자들의 ‘노인요양시설 비용의 일부 보장이 가능한 상품’ 가입 의향은 63.5%인 반면 비의향자들은 28.1%
- 다만, 현재까지 치매관련 금융상품 가입률은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의향자보다 입소 의향자가 소폭 높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편
 -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자의 치매간병보험 및 치매신탁 가입률은 13.4%인 반면 비의향자의 관련 상품 가입률을 9.7%에 그침

■ 新시니어의 케어시설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상품 및 연계 서비스 개발을 제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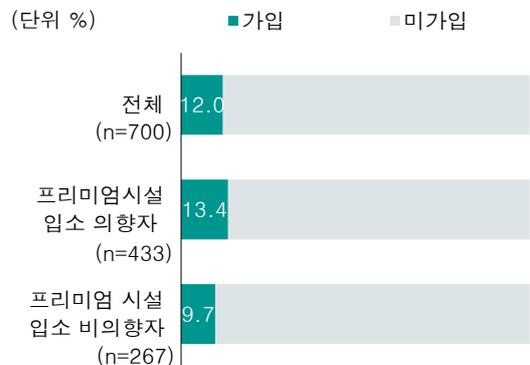
- 요양비용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및 종합적인 은퇴 솔루션을 제공을 확대하여 새로운 시니어층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관계를 형성할 필요
 - 향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인요양시설 입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공급
 - 금융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은퇴 솔루션 제공 방안을 모색
-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보유한 新시니어 층의 니즈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금융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모색 

■ 노인요양시설 비용 보장이 가능한 상품 가입 의향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 치매간병보험 및 치매신탁 가입 여부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사, 중동 사업 확대

오 유 진 연구위원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들이 중동의 양호한 경제 여건 속 견조한 금융자산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동 IPO 시장에서 기회를 엿보는 한편 국부펀드와 협업하여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JP모건, UBS 등은 중동 지역 인력을 확대해 금융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자동차, 건설/인프라, IT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동 사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들도 관련 수요 대응을 위해 중동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대형 금융사들은 중동의 풍부한 자본과 증가하는 부유층을 공략하기 위해 사업 확장 추진^[1]

- 중동 지역 내 부유층 증가와 우호적인 조세·법률제도에 따른 해외 고액자산가 유입 확대 등으로 UAE 등 중동 주요국들이 신흥 부(wealth)의 거점으로 부상
 - UAE는 미국, 싱가포르를 제치고 고액순자산보유자 순위에서 '24년 1위를 기록
-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주요국들이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나서며 다양한 기업금융 수요가 창출
 - 투자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대규모 국부펀드들이 주도
- 사우디, UAE, 카타르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당시 3.2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美-중동 간 경제적 협력도 강화
- 중동 지역의 양호한 경제 여건 속 견조한 금융자산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사들은 자산관리, IB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확대를 진행

■ 골드만삭스는 중동 IPO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국부펀드와 협업하여 입지 강화 모색

- 사우디 및 UAE 등의 경제 다각화 정책에 힘입어 중동 非석유 기업들의 IPO가 늘어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상장 주관사로 활발히 참여 중
 - '25년 1분기 중동/아프리카의 IPO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75% 늘어난 21건, 조달 자금은 116% 늘어난 26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 유지
- 동사는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와 GCC 지역 내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25.3)하며 신규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등 입지를 확대

[1] "Goldman and UBS Lead Wall Street's Latest Push Into Middle East", Bloomberg, 2025.5.21

- 골드만삭스는 중동 국부펀드와의 투자 파트너십 확대 등을 위해 중동 전역에 오피스를 개설하고 인력 채용을 검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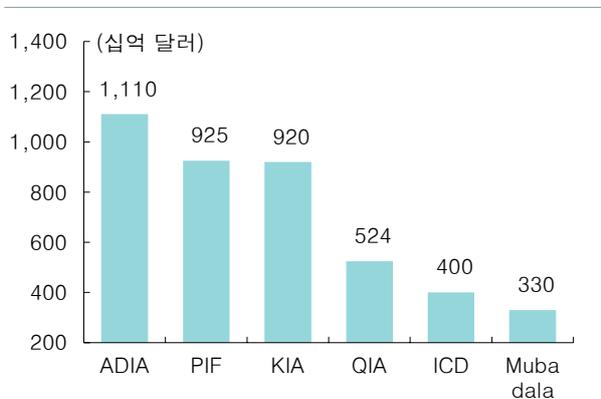
■ JP모건, UBS 등도 중동 지역 인력을 증원하고, 자산관리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

- JP모건은 현재 370명인 중동 지역 직원수를 약 500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현지 사무소 및 인력 기반을 강화해 중동 내 금융 서비스 제공 역량을 높이고자 함
 - JP모건은 '24년 9월, 부유층 고객 대응을 위해 두바이에 프라이빗 बैं킹 팀을 신설
- UBS는 영국 등을 떠나 중동 저세율 국가로 이동하려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부다비에 신규 지점을 오픈할 예정
 - UBS는 두바이, 리야드, 바레인 등에 지점이 있으며, 약 600명의 직원을 고용 중
- 이외에도 시티('24.11) 모건스탠리('24.11), 뉴욕멜론은행('25.5) 등이 사우디 투자부로부터 지역본부 설립을 허가받는 등 주요 금융사들의 중동 진출 활발

■ 국내 금융회사도 해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

- 중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트럼프 관세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며, 사우디, UAE 등 주요국들의 정치적 안정성도 비교적 양호한 편
- 현대차의 사우디 자동차 공장 건설 등을 비롯해 건설/인프라, 에너지,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주 및 중동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
- 글로벌 금융사들의 중동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금융사도 국내외 금융수요 대응 및 수익 창출을 위해 중동에 대한 전략적 진출 등을 고려 

■ 중동지역 주요 국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



주 : '25.5월 조회기준
자료 : Global SWF

■ 지역별 순 자산(net wealth) 규모 및 성장 전망

	'23년 규모 (조달러)	'22~'23년 증가율	'23~'28년 연평균성장률
북미	169.0	7.3%	6.1%
서유럽	103.0	1.5%	3.3%
남미	16.9	7.9%	8.9%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10.8	4.3%	6.4%
아시아태평양	134.5	2.2%	5.8%
중동/아프리카	19.2	7.8%	10.3%

자료 : BCG

SMBC, 인도 Yes Bank 지분 인수

유승원 연구원

日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SMBC가 인도 6위 민영은행인 Yes Bank의 지분 20%를 15.8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이번 Yes Bank 인수로 SMBC는 DBS에 이어 두 번째로 인도 국내은행을 인수하며 아시아 Multi-Franchise 전략을 완성하였다. 다른 일본 메가뱅크인 MUFG, Mizuho 또한 인도 시장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진출하고 있다. 이번 인수 이후 해외은행의 인도 은행업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국내은행들도 인도 금융업 규제 변화에 대응해 진출 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 日 3대 메가뱅크 SMBC는 인도 Yes Bank의 지분 20%를 15.8억 달러에 인수^[1]

- 금번 SMBC의 Yes Bank(인도 6위 민영은행) 인수는 해외은행의 인도 국내은행 투자로는 '20년 DBS에 이어 두 번째이며, 투자 규모로는 최대
 - 인도 금융당국(RBI)은 '20년 파산은행인 LVB(Lakshmi Vilas Bank)를 싱가포르 DBS에 '0원'에 매각하였으며, DBS는 LVB에 250억 루피(3,812억원)를 투입해 정상화
- 인도 금융당국(RBI)은 국내 민영은행에 대한 해외은행 지분 상한선을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Yes Bank는 부실은행으로 예외를 적용하여 20%까지 취득 허용
 - Yes Bank는 '18년 인도 그림자금융 위기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금융당국은 '20.3월부터 3년간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후 신규 인수자를 탐색

■ SMBC는 이번 인도 민영은행 인수로 아시아 Multi-Franchise 전략을 완성

- 기존에는 인도 금융당국(RBI)의 규제로 해외은행의 인도 국내은행 인수는 제한적이었으나, 국영은행의 민영화 추진되는 등 금융시장이 점차 개방
 - 최근 인도 민영은행의 대출 시장 점유율은 27%('17) → 41%('24)로 크게 증가
- SMBC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4개국(인도, 인니, 베트남, 필리핀) 지역에 제2, 제3의 SMBC 그룹을 구축하는 '아시아 Multi-Franchise' 전략을 추진
 - '19년 인도네시아 BTPN을 인수하고 자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3년 필리핀 은행 RCBC의 지분 20%, 베트남 은행 VPBank의 지분 15%를 각각 인수
 - 인도에서는 '24.3월 비은행 금융회사인 SMFG India Credit의 자회사 편입에 이어 Yes Bank까지 인수하면서 풀뱅크 서비스 제공이 가능

[1] "SMBC's 20% stake purchase is credit positive for Yes Bank: Moody's", Business Standard, 2025.5.14

■ 그동안 일본 메가뱅크(MUFG, Mizuho)는 비은행 금융사를 중심으로 인도 시장 진출

- (MUFG) 인도의 비은행 금융회사 DMI Finance, 핀테크 기업 KreditBee 등 지난 5년간 인도 스타트업에 27억 달러를 투자해 금융시장 입지 강화 및 수익 확대
 - 인도 기업 투자 및 인수를 확대해 10년 안에 연수익을 20%로 늘릴 계획을 제시^[2]
 - MUFG는 인도의 비은행 금융 플랫폼 DMI Finance, 핀테크 기업 KreditBee 등에 투자하여 현지 금융플랫폼 연계를 통한 금융시장 입지를 강화
- (Mizuho) 인도의 비은행 금융회사를 인수하고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인도 IPO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인도 주요 투자은행 인수를 추진
 - 인도의 비은행 금융회사인 Kisetu Saison의 지분 15%를 1.45억 달러에 인수('24.2)하였으며, 추가로 1.5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Kisetu Saison의 영업을 적극 지원('25.4)^[3]
 - 또한, 약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인도 주요 투자은행 Avendus Capital의 지분 63%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 중^[4]('25.2)

■ 인도 은행업 진출의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국내은행들도 투자 기회를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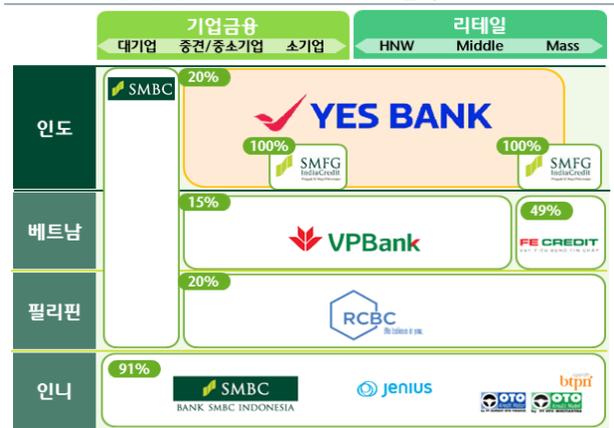
- 국제 신용평가사 Fitch Ratings는 SMBC의 Yes Bank 인수 이후 해외은행의 인도 국내은행 투자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 인도 정부는 국영은행 IDBI Bank의 지분 61% 매각도 '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
- 국내 금융사들도 인도 금융업 규제 변화 및 해외은행들의 진출 전략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비은행 외에 은행업 투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 

■ 인도 은행 업권별 대출 시장 점유율 변화



자료 : RBI

■ SMBC의 아시아 Multi-Franchise 전략



자료 : SMBC

[2] "MUFG seeks acquisitions in India to drive growth, targeting 20% returns", The Japan Times, 2024.11

[3] "Kisetu Saison Finance(India)に対するギフトシティ支店を活用したECBローンの実行について", Mizuho, 2025.5

[4] "Mizuho Is Said to Near Deal to buy KKR-Backed Avendus Capital", Bloomberg, 2025.2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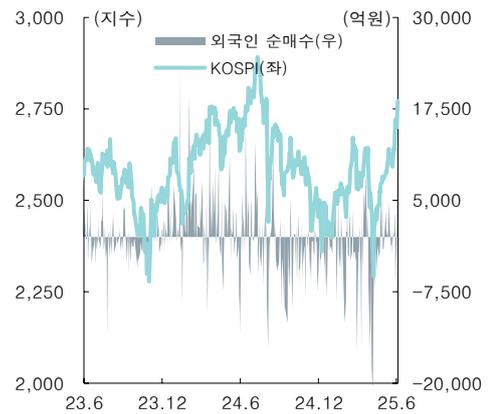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4월말	2.78	2.71	2.54	2.87	2.27	2.38
5월 28일	2.74	2.63	2.48	2.89	2.31	2.47
5월 29일	2.55	2.60	2.49	2.91	2.34	2.50
5월 30일	2.58	2.59	2.49	2.92	2.35	2.52
6월 2일	2.54	2.59	2.49	2.92	2.34	2.52
6월 4일	2.52	2.58	2.51	2.98	2.41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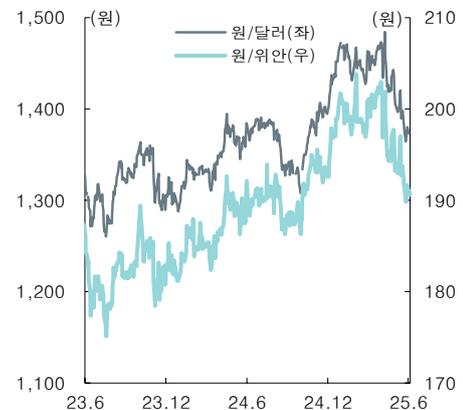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4월말	2,556.6	84,356	487	-1,686
5월 28일	2,670.2	112,388	405	3,026
5월 29일	2,720.6	108,956	448	2,947
5월 30일	2,697.7	148,036	526	-6,118
6월 2일	2,699.0	80,629	324	1,285
6월 4일	2,770.8	121,064	490	10,549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24년말	1,435.5	928.0	197.0	1,487.9
4월말	1,421.0	993.2	195.4	1,609.7
5월 28일	1,376.5	950.1	191.3	1,554.3
5월 29일	1,375.9	954.0	191.4	1,563.7
5월 30일	1,380.1	957.5	191.7	1,565.8
6월 2일	1,373.1	961.9	190.7	1,570.9
6월 4일	1,369.5	959.0	190.6	1,5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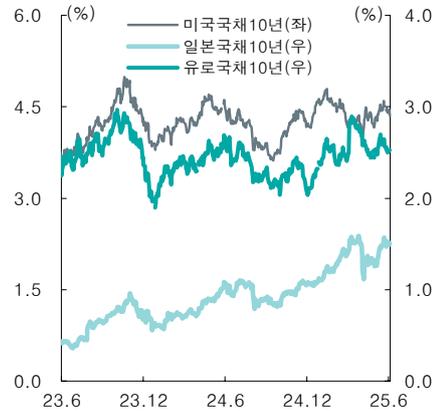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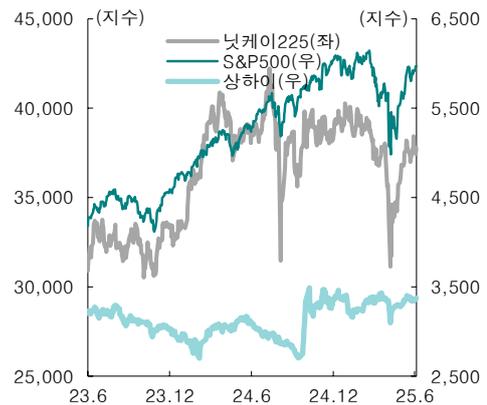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24년말	4.33	4.31	4.24	4.57	1.10	2.37
4월말	4.33	4.36	3.60	4.16	1.32	2.44
5월 29일	4.33	4.35	3.94	4.42	1.53	2.51
5월 30일	4.33	4.35	3.90	4.40	1.50	2.50
6월 2일	4.33	4.35	3.94	4.44	1.51	2.52
6월 3일	4.33	4.35	3.95	4.45	1.49	2.53
6월 4일	-	4.35	3.87	4.36	1.51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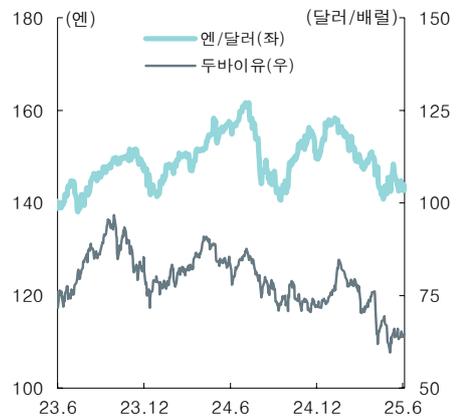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4월말	5,569.1	36,045.4	3,279.0	5,160.2
5월 29일	5,912.2	38,433.0	3,363.4	5,371.1
5월 30일	5,911.7	37,965.1	3,347.5	5,366.6
6월 2일	5,935.9	37,470.7	-	5,355.6
6월 3일	5,970.4	37,446.8	3,362.0	5,375.7
6월 4일	5,970.8	37,747.5	3,376.2	5,405.2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4월말	143.06	1.133	62.5	3,319.1
5월 29일	144.17	1.136	65.3	3,343.9
5월 30일	143.98	1.135	63.8	3,315.4
6월 2일	142.67	1.144	63.9	3,397.2
6월 3일	143.95	1.137	64.3	3,377.1
6월 4일	142.74	1.141	64.6	3,401.7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1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5년 6월 5일 인쇄

2025년 6월 9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1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